

당정, 내년에도 확장재정...한국판 뉴딜 20조원 이상 투입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회
사회안전망·방역 예산 강화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 증액

내년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반영될 전망이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주거 지원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이같이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주거 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사회 포용성 강화 등 국정성과 가시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200만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며 민간 소비와 공공투자, 수출, 지역경제 등 전반적 경기지원 예산을 확실히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3~4년 예산이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내년 예산은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앞당기고 성과를 거둬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을 사례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익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조장익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장익,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강기정 “군 공항, 작계 손해 보더라도 크게 이익 보는 빅딜해야”

이용섭 시장 만나 논의

강기정(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수년째 답보 상태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광주와 전남이 크게 상생할 수 있는 이익공유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군 공항 이전이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당장은 작계 손해를 보더라도 따지고 보면 크게 이익이 되는 빅딜을 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도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 차례 말씀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영남처럼 광주-전남도 빅딜을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지난번 시·도지사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라마다 회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신공항에 합의한 것처럼 광주와 전남도 빅딜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전 수석은 “군 공항 문제는 소음 때문에 지역민 입장에서 참 고통스러운 일이다. 무안인데 신안인데 지자체장 입장에서 오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무안군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으나 제 신상 변동으로 안됐지만, 개인적이라도 무안군수를 만나 대화하고 싶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전남이 판단해야 한다. 전남은 정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으니 손에 편 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행 시기는 다를 수 있다”면서 “또한, 의대 설립은 법을 바꿔야 하고, 의대가 생기면 부속 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동시에 설립되는 게 아니고 한참 멀 수 있다”며 군 공항을 넘겨받는 대신 전남이 그 보상으로 의대 설립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방부는 원래대로 군 공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중국·남북 관계 등 여러 안보 변화 상황에 맞춰 (군 공항 규모를) 슬림화시키고 (소음이 발생하는) 비

행 훈련도 줄이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전 수석은 공공기관 2차 이진과 관련, “1단계 이전에 대한 평가와 향후 2차 이전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용역 결과는 나와 있다”면서 “현재는 2차 이전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결정된 바 없다”고 직답을 피했다.

강 전 수석은 앞서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만나 군 공항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경쟁했지만, 패했다. 강 전 수석은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서울에서 계속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 대통령, 의협 파업·민노총 명단 거부 법집행 힘 실어줘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이어지자 의협계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미 정부는 수도권 병원 전공의·전임의의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같은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법집행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도록 하는 등 의료계 파업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한 비상 관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민주노총의 8·15 종가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김은영의 '그림 생각'

(326) 개구리

“가가 거저/고고 구구/그기가/라라 러려/로로 루루/르러라”(한운산 작 '개구리') 여름밤 시골 풍경을 완성하는 음향은 무논에서 목 놓아 노래 부르는 개구리 소리다. 울리는 윤달이 끼어서인지 여름이 늦게 왔고 그만큼 길게 갈 모양이다. 어느 때 같으면 귀뚜라미 소리가 가늘게 들릴 법한데 아직까지는 여름 끝자락, 개구리 소리가 목가적인 정취를 더한다.

코로나 네뿔 싸움에 개구리 끌어 들이지 말라

코로나 19가 더욱 위태로워진 상황을 두고 온 나라가 서로 네뿔이라며 책임공방이 한창이다. 시끄러운 주장을 펼치는 모양이 악머구리 뿔뿔 하다고 해서 매체에서는 가만히 있는 개구리를 빗대는 것 같다. 개구리 울음소리를 한글 발음에 기대 아홉답게 노래하듯이 묘사한 시인이 들으면 개구리 왕눈이처럼 눈이 커지지 않을까? 겸재 정선(1676-1759)의 '여뀌와 개구리'는 한여름 여뀌 풀 더미에서 더위를 식히는 개구리가 풀 사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여뀌와 개구리의 귀여운 모습 이 더없이 반갑다. 진경산수의 명수로 알

려진 겸재는 화조, 초충, 영모도 곧잘 그렸는데 개구리 그림 역시 겸재의 특징적인 사생적 필치와 막힘없이 구사한 공간 구성이 돋보인다. 겸재는 이 그림 외에도 여뀌 아래 다른 동작을 하고 있는 개구리 그림들을 여럿 남겼다. 역동적으로 뛰어오르는 개구리가 신선 상상을 뜻하는 행운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던 조선시대에는 학문을 닦아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선비들이 애호하는 소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한자어로 일명 '요화하마도(蓼花蝦蟆圖)'라고도 하는데 조선 후기 서화 수집가였던 김광국(1727-1797)이 펴낸 '화원별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시



겸재 정선 작 '여뀌와 개구리' 대 주요 화가들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의 작품도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계 열 | 모 집 단 위 | | 모 집 인 원 | |
|---------|---------------------------------------|-----|---------|--|
| | 학 과 | 수 시 | 정 시 | |
| 인 문 사 회 | 신 학 과 | 30 | 15 | |
| | 한국어교육학과 | 2 | 2 | |
| |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 31 | 3 | |
| 사 범 | 유아교육과 | 7 | 3 | |
| 예 능 |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23 | 6 | |
| | 총 계 | 93 | 29 |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형 일: 2021. 1. 18(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으로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